

광주 평촌마을 '체류형 생태관광' 뜬다

환경부 시범사업...전국 체험단 25명 생태 가치 재조명 羨시장, '반디밥상' 오찬하며 생태관광 활성화 힘 보태

'야의 박물관'이라 불리는 광주 평촌마을이 '체류형 생태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평화여행, 가사문화, 반디밥상, 포도 수확,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1박 2일 간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전국 체험단 25명이 생태 가치를 재조명하는 '2024 체류형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체험단은 환경부 선정 '9월의 생태관광지'인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자연과 생태계를 체험하며 가치를 몸소 느끼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체류형 생태관광 체험을 통해 자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머무는 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왕버들나무에서 광주 호수생태원까지 탐방하는 '무등산 생태평화 여행길'을 거닐었다. 또 반딧불이와 수달이 서식하는 풍암천과 평도뜰을 둘러보며 자연의 신비와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또 마을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무등산 분청사기전시관과 평촌도에공방도

에 체험을 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다.

특히 체험단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농산물로 차린 '반디밥상'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생태관광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둘째 날엔 포도 수확 등 평촌마을의 할머니 농촌 체험에 이어 소쇄원·석영

정·환벽당 등 가사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무등산 평촌마을은 2015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딧불이·수달·남생이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광주호호수생태원, 환벽당·취가정·소쇄원, 분청사기전시관 등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9월의 생태관광지'

로 선정, 전국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평촌마을과 광주시 생태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체류형 생태관광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속 생태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북구 무등산 평촌마을 무돌길 쉼터에서 환경부 선정 체류형 생태관광 체험단과 함께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광주시서 이전...긴밀한 소통·협력 기대

전남도는 29일 "전남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서 전남도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익·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기법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용 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어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민권익위, 워크숍서 1년 성과 공유

광주여대 앞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등 논의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1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광주시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남구 어반브룩에서 '2024년 시민권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양현 시민권익위원장 및 시민권익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활발한 시민권익 활동을 당부했다. 또 한 시간 가량 시정에 대한 권익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민권익위는 이날 '광주여대 앞 8차

선 대로변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권익위는 광산구 건설과에 통학로의 소규모 이동체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를 위한 내년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로 하고, 광주경찰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권익위원들은 올해 성과도 공유했다. 올해 만호육교 보수 및 리모델링, 생활예술인을 위한 공연 연습실 지원, 남구 포충로 일원 노후도로 재포장 요구 등 총 9건의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박선강기자

27만 관람객 '남도음식' 매력에 퐁당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인기몰이...3일간 '味樂'의 추억 선사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기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음식에 퐁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제남도음식문화제는 30주

년을 맞아 다채로운 남도음식 콘텐츠로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쿡쇼, 어린이 쿡킹 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이 큰 인기를 끌었다.

12명의 남도음식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시한 형형색색의 남도 음식

작품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주제로 반올림 피자과 협력해 개발한 남도 1호 피자 무료시식 행사도 인기를 모았다. 남도피자는 오는 11월 전국 반올림 피자매장에 출시된다.

이와 함께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글로벌 미식존에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정지선·임희원·오세득 셰프를 비롯해 미술쟁 이스타 니시무라, 블러리본 맛집 효프의 남도요리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남도

의 맛을 선보였다.

오세득·정지선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존 일부 부스는 3일간의 식재료가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29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김밥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부 대회에는 총 33개 팀이 참여했으며 '비건 속부쟁이' 장아찌김밥을 요리한 한기남·한지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지사는 "케이(K)-푸드 중심에 있는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 한편, 내년에 개최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남도음식의 세계화·산업화를 앞당기고 남도 미식을 관광자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전남 미술제' 개막

전남도는 지난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륙예술회,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행사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 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 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 도는길을 끌었다.

/양시원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